

《心圖》 解題

金 允 濟*

1.

이 책은 周世鵬(1495~1554)이 1546년(명종1) 임금의 心性 修養을 위해 여러 心說을 모아 만든 책이다. 주세붕의 문집인 《武陵雜稿》의 여러 곳에서 그 편찬 사실을 밝히고 있으며, 1) 《增補文獻備考》에도 《心經心學圖》라는 이름으로 書目이 수록되어 있다. 2) 편찬 직후 간행된 이 책은 중간에 逸失되어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 19세기 중반에 重刊된 《무릉잡고》의 발문에서 柳致明(1777~1861)은 “(주세붕이) 만들어 바친 《心圖》가 없어져버려 전하지 않으니 안타깝다”고 적고 있으니, 이 책은 그 이전에 이미 逸失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최근 중국 북경대 도서관에 이 책이 소장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1994년 규장각과 중국 북경대 도서관과의 학술교류사업으로 진행된 상호방문 과정에서 북경대 도서관에 소장된 조선본의 목록과 貴重本 10종을 복제한 마이크로필름을 기증받았는데, 3) 그 가운데 《심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 寫本의 형태로나마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현재 규장각에서는 마이크로필름을 프린트한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원본이 아니기 때문에 책의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며 표지도 없고 소장처의 분류번호도 없는 상태이다. 4) 속표지에는 “心圖一卷 朝鮮周世鵬撰 明嘉靖朝鮮刻本 一函一冊”이라고 墨書되어 있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써 넣은 것으로, 이 책의 간행연도를 16세기 중반인 明嘉靖年間으로 추정하였다. 그 다음 장 본문 첫면에는 “北京大學章” “養安院藏書” 등의 藏書印 3개가 찍혀 있는데, 이 가운데 특히 “養安院”이라는 舊藏處가 주목된다. 이를 추적하면 이 책의 간행연도나 유출경로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陶磁器戰爭」으로 불리는 임진왜란은 또한 書籍戰爭이기도 했다. 大型이며 紙質이 좋고 인쇄가 선명한 조선의 간행본들은 일본인들에게 도자기와 더불어 중요한 약탈의 대상이 되

*필자: 규장각 학예연구사

1) 《武陵雜稿》附錄 권2 「年譜」 1546년條 및 「重刊跋」 「跋」 참조.

2) 《增補文獻備考》 권246. 「藝文考五」 儒家類
心經心學圖一卷 副提學周世鵬撰

3) 이는 1994년에 간행된 《奎章閣》 17집에 「北京大學圖書館藏 有關朝鮮 古文獻目錄」으로 정리 수록되었다.

4) 위 목록에는 “李□284”로 되어 있다.

었다. 이 때 일본으로 건너간 서적들은 대개 豊臣秀吉과 각 地方領主의 소유가 되었는데, 豊臣秀吉에게서 많은 책을 받은 醫師 曲直瀨氏は 대대로 그 책을 간직해 왔으나 明治 前後에 散佚되고 말았다고 한다.⁵⁾ 曲直瀨正琳(1565~1611)은 安土桃山·江戸時代 初期의 醫學者로 1592년 豊臣秀次에게 베풀하여 250石을 賜與받고, 文祿年間에는 正親町上皇을 치료하여 法印이 된 인물이다. 1600년에는 後陽成天皇의 병을 치료하여 養安院이라는 號를 받았고 1605년에는 德川家康의 侍醫가 되었다.⁶⁾ 이 曲直瀨正琳이 바로 養安院의 주인으로, 그가 한때 소장했던 장서에 “養安院藏書”라는 장서인이 찍힌 것이다.⁷⁾ 따라서 이 “養安院藏書”印이 날인된 책들은 모두 임란 이전에 간행된 서적들로 서지학적으로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양안원의 장서들은 계속 한 곳에 보관되지 못하고 19세기 후반 무렵에 뿔뿔이 흩어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북경대 도서관 소장본 중 “양안원장서”가 찍힌 책은 《심도》 이외에도 《格齋韻唐宋賢詩》 《三略直解》 《韻書(洪武正韻)》 등 3종의 刊本이 더 있으며, 이들 모두 朝鮮 前期의 목판본이다. 또 규장각에도 이 장서인이 찍힌 책이 있어 눈길을 끈다. 權近의 《人學圖說》(貴 181.11 (3995j))이 바로 그것인데, 이는 본래부터 규장각에 소장된 책이 아니라 일제시대 이후 추가로 수집되어 규장각도서에 포함된 一般古圖書이다. 이 책의 본문 첫장에는 “양안원장서”가 찍혀 있고 맨 뒷장에는 “末松保和”印이 날인되어 있다. 결국 朝鮮 前期에 간행된 이 책은 임란 때 일본으로 건너갔다가 일본인 학자에 의해 수집된 뒤,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대학교 도서관으로 편입되어 현재의 규장각에 소장되기에 이른 것이다.

임란 때 일본으로 건너간 朝鮮 前期의 간행본들은 그 후 수집된 和漢書들과 함께 內閣文庫나 蓬左文庫를 구성하는 등 일괄적으로 보존되기도 했으나, 양안원의 장서처럼 중간에 여기저기 흩어진 책들도 상당히 많았다. 특히 위와 같이 중국으로 흘러가거나 한국에 다시 들어온 책들도 있으니, 그럴 경우 이 책의 간행지나 간행연도, 유출경위 등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다행히 양안원 장서처럼 그 장서인이 남아있는 경우 이를 통해 여러 사실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된다.

《심도》는 편찬 이듬해인 1547년에 간행되었는데, 양안원장서인이 찍힌 이 책은 임란전 刊本이므로 당시의 그 판본으로 생각된다. 임란 때 일본으로 넘어가 양안원에 소장되었다가 19세기 후반 양안원 장서가 해체될 때 흩어져 여러 책들과 함께 결국 중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이다. 이후 조선에서는 책 제목만 전하고 그 내용은 알 수 없었으니, 이 책의 발견은 朝鮮 前期의 刊本이라는 서지학적 가치 외에도 국내에 없는 希貴本이란 점에서 내용상으로도

5) 藤本幸夫, 1996, 「일본에 있는 韓國本과 그 特徵에 대해서」, 《민족문화논총》 16, 영남대 민족문화연구소

6) 《新版世界人名辭典》日本編, 1979, 東京堂出版

7) 沈炳俊, 1988, 《日本訪書志》 p.227에서 일본 內閣文庫에 소장된 《許魯齋先生心法》을 설명하는 가운데 “1611년에 죽은 醫師 曲直瀨正琳의 「양안원장서」印記가 있다”고 하여 이를 거듭 확인하고 있다.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2.

이 책의 서문에 의하면 1546(명종1)년 9월 왕이 홍문관에 《心圖》의 撰進을 명령하여 副提學 주세붕이 그해 10월에 이 책을 만들어 바쳤다고 한다. 이 서문이 이듬해 1월에 쓰여진 것으로 보아 편찬 직후 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1권으로 되어 있는 이 책의 체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주세붕이 쓴 서문으로 이 책의 편찬경위를 밝히고 있는 「進獻心圖序」가 있고, 다음부터는 본문으로 마음 수양에 긴요한 격언과 그림을 수록한 20개의 圖說이 실려있다. 본문을 구성하는 20개의 도설은 「心學圖」「人心道心圖」「誠幾圖」「舜跖圖」「有心四病圖」「無心三病圖」「鑑空衡平圖」「四端圖」「以羊易牛圖」「漱壁螻蟻圖」「養魚圖」「牛山伐木圖」「求還鷄犬圖」「求伸屈指圖」「二人學奕圖」「心要大」「心要小」「心之明蝕高下圖」「養心」「省心」이다. 각 도설은 그림과 그에 해당하는 해설로 이루어져 있는데, 해설부분은 다시 본문과 註로 나뉜다. 도설이 끝난 후 이어서 范濂의 「心箴」、朱子の 「敬齋箴」·「求放心齋銘」·「尊德性齋銘」、眞德秀의 「心贊」이 附錄되어 있고, 맨 끝에는 「臣等伏見——」이라고 하여 이 책의 편찬동기 및 수록경위에 대해 주세붕 개인의 의견을 밝힌 글이 붙어 있다. 전체적으로 분량은 많지 않지만 체제가 통일되어 있고 설명이 간략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책의 제목은 이제까지 여러 가지로 불려왔다. 《武陵雜稿》의 「重刊跋」에서는 《心圖》, 「年譜」에서는 《心圖說》, 실록 해당기사에서는 《心學圖說》,⁸⁾ 《增補文獻備考》에서는 《心經心學圖》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 책을 내용을 살펴본 결과 「序文」이나 版心에는 《心圖》로 표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은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마음 수양에 필요한 격언과 그림을 모아 편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편집 과정에서 아무 心說이나 다 수록한 것은 아니고 일정한 토대나 기준을 두었으니, 그 바탕이 되는 책이 바로 《心經附註》였다.⁹⁾

1530~4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심경부주》는 1560년대 李滉의 연구와 평가에 힘입

8) 《明宗實錄》 권4, 명종원년 11월 癸亥條에 “弘文館以所撰心學圖說及大學圖說入啓曰 心字之義 備諸入學圖說矣 今以古人論心之說 集爲一部 名之曰心學圖說 大學圖說則雖無上教 今方進講大學 故作圖說以啓” 라하여 이해 11월 홍문관에서 聖賢들의 心說을 모아 《心學圖說》을 만들고 아울러 《大學圖說》을 만들어 바친다고 기록되어 있다.

9) 《心經》은 중국 송나라의 眞德秀가 편찬한 성리서인데, 이에 대해 명나라 학자인 程敏政이 註를 붙인 해설서를 만들어 《心經附註》를 편찬하였다. 16세기 이후 조선의 학자들이 애독한 책은 바로 이 《심경부주》인데, 이는 《심경》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 중기 이후의 유학자들은 대개 이를 혼용하였고, 따라서 《심경》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심경부주》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다.

어 《소학》 《근사록》과 함께 성리학의 필독서로 중시된 책이다. 대표적인 性理學 心學書인 《심경부주》는 조선 성리학이 心性重視 경향을 띠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책으로 보급초기 단계부터 그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었다. 《심도》는 당시 막 보급되어 心學教材로 주목받기 시작한 《심경부주》를 바탕으로 편찬된 책이며, 《증보문헌비고》의 《심경심학도》란 표기는 이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책은 단순히 《심도》 자체로서 다루어질 것이 아니라 《심경부주》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주세붕은 각 圖說의 수록 경위에 대해 “程敏政의 心學圖·王魯齋의 人心道心圖·趙致道の 誠幾圖·范蘭溪의 舜跖圖는 그대로 圖로 만들어 바치고, 아울러 臣이 採集한 16도를 그 다음에 첨부하였으며, 聖賢들의 격언을 모아 수록하였습니다”라고 밝히고 있다.¹⁰⁾ 여기서 말하는 ‘그대로 圖로 만들어 바쳤다’는 4개의 그림은 《심경부주》에 수록된 圖이다. 따라서 주세붕은 《심경부주》를 기본으로하여 마음 수양에 관련된 중요한 句節들을 채록하고 아울러 이를 그림으로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20개의 도설을 각 조목별로 《심경부주》와 비교해보면, 그림은 4개만 《심경부주》의 것을 그대로 실었으며 나머지는 주세붕이 다른 책에서 採集하거나 작성하였다. 해설부분의 본문이나 註의 경우 대략 절반 정도는 《심경부주》에 수록된 것이며, 나머지는 다른 經傳이나 性理書에서 채록한 것이다. 또 본문 이외에 부록된 「心箴」 「敬齋箴」 「求放心齋銘」 「尊德性齋銘」 「心贊」 등도 《심경부주》에 본문 혹은 서문으로 실린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심경부주》에서만 도설을 취한 것은 아니다. 圖의 경우 《심경부주》 전체를 통틀어 4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모두 실었다고 할 수 있으나, 說의 경우 37개나 되는 《심경부주》의 조목 가운데 일부만 수록하고 나머지는 《孟子》 등 다른 책에서 취하였다. 특히 《심경부주》에 실린 《맹자》 句節을 재인용했을 경우라도 《심경부주》의 해당 註를 인용하지 않고 朱熹의 《孟子集註》를 수록한 경우도 보인다.¹¹⁾ 결국 주세붕은 《심경부주》를 기본으로 하되 이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經傳이나 性理書를 참고하여 心說에 관련된 자료를 採錄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을 보면 임금의 심성수양에 필요한 격언과 그에 대한 설명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주세붕이 책을 편찬한 목적이 바로 帝王의 心學에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책을 만들어 바치는 이유에 대해 “帝王의 心學을 위한 책으로 《입학도설》 등은 부족하기 때문에, 좀 더 요령있고 心學에 초점을 맞춘 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였다.¹²⁾ 실제로 이 책의 본문은 군주의 마음 수양에 필요한 격언이나 事例를 간략하게 수록하고 그 내용을 요약한 그림을 덧붙임으로써 왕이 쉽게 이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다른 책보다 《孟子》에서 인용한 도

10) 《心圖》, 맨 끝의 「臣等伏見—」부분.

11) 《心圖》의 8번째 「四端圖」와 13번째 「求還鷄犬圖」가 이에 해당한다.

12) 《心圖》, 맨 끝의 「臣等伏見—」부분.

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한 조목 전체를 인용한 것은 7개,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은 3개로, 전체의 절반 가량을 《맹자》에서 인용하고 있다.¹³⁾ 이들은 대개 《심경부주》에 인용된 것을 재인용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 중 2개는 《심경부주》에 없는 것을 주세붕이 수록한 것이다.¹⁴⁾ 《맹자》는 다른 성리서에 비해 그 내용도 쉬울 뿐더러 맹자가 戰國時代 제후들과의 문답을 통해 王道政治를 역설한 책이다. 더구나 맹자는 儒敎의 心學의 開祖이며, 朱熹 역시 《맹자》가 갖는 심학적 특징의 하나로 ‘格君心之非’를 거론하고 있다.¹⁵⁾ 이런 점에서 주세붕이 군주의 심학 교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맹자》에 주목하고 인용서목으로서의 비중을 크게 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수록된 圖의 내용도 후대 이황의 《聖學十圖》에서 보이는 것처럼 내용분석을 통한 요약 형태가 아니라, 해설 내용에 나오는 행위를 상징적으로 그린 단순한 行實圖가 많은데, 특히 《맹자》 인용 부분의 경우가 그렇다.¹⁶⁾

결국 주세붕은 국왕의 심학교재라는 점을 의식해서 心說에 관련되는 자료를 모으되 이해하기 쉬운 내용 위주로 하였고, 아울러 간단명료하게 그린 圖를 덧붙임으로써 明宗으로 하여금 이 책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이 책이 갓 즉위한 13세의 어린 왕(明宗)을 위해 지어진 것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주세붕의 이런 배려는 충분히 이해된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 책은 일반학자를 위한 《심경》 연구서라기보다는 당시 보급되기 시작한 《심경부주》에 주목, 이를 기초로 편찬된 君主用 心學敎材의인 성격이 짙다.

1541년(중종36) 李彥迪(1491~1553)은 世子の 書筵에서 《심경부주》를 교재로 사용하도록 요청하였다.¹⁷⁾ 1530년대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심경부주》가 154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가치와 내용에 대한 기본적인 검토를 거쳐, 일반학자들의 심성 수양서로서 뿐만 아니라 군주의 심학교재로 주목받기에 이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세붕은 《심경부주》를 기본으로 여러 책들을 참고하여 心說을 정리한 후 필요할 경우 자신의 의견을 보충하여 군주의 심학교재인 《심도》를 편찬하였던 것이다. 그 내용은 《심경부주》를 비롯한 성리서의 요약·발췌 수준이었고, 이는 본격적인 《심경부주》 이해 前段階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심경부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6세기 후반에 이르러 성리학의 전반적인 이해수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황 등에 의해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책은 《심경부주》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서도 후대의 《심경부주》 연구에서 집중되는 치밀한 내용분석이나 용어해설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심경부주》 편찬자인 程敏政에 대한 논의, 《심경부주》에 대한 평가,

13) 《심경부주》의 경우 전체 37조목 가운데 12조목을 《맹자》에서 인용 수록하였다.

14) 《心圖》의 9번째 「以羊易牛圖」와 15번째 「二人學奕圖」가 이에 해당한다.

15) 安炳周, 1987, 「退溪의 學問觀-心經後論을 중심으로」 《退溪學研究》1, 단국대 퇴계학연구소, pp. 42-45 참조.

16) 《心圖》, 「鑑空衡平圖」, 「以羊易牛圖」, 「欽避蟻蟻圖」, 「養魚圖」, 「牛山伐木圖」, 「求伸屈指圖」, 「二人學奕圖」가 이에 해당한다.

17) 《中宗實錄》 권94, 중종 36년 3월 己酉

敬重視사상 등 이황과 그 제자들이 《심경부주》 연구에서 집착했던 문제의식이 드러나지 않는다. 이는 물론 《심도》의 편찬의도가 국왕의 마음 수양에 두어졌다는 데 가장 큰 원인이 있겠지만, 아울러 당시의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수준 자체가 깊지 못했다는 사실도 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심경부주》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그 이해가 어느정도 심화된 단계에서나 가능한 것인데, 이제 막 《심경부주》가 보급되기 시작한 상황에서는 소개나 요약·정리의 차원에 머물 뿐 내용 분석이나 새로운 견해 제시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20년 뒤 이황과 그 제자들의 집중적인 연구에 의해서야 성취된다.

한편 《심도》의 편찬에는 직간접적으로 權近의 《입학도설》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심도》의 서문에서는 “왕이 입학도를 이미 다 보았으니 별도로 心圖를 만들어 바치라고 홍문관에 명령했다”고 밝히고 있으며, 앞에서 인용한 것처럼 주세붕은 《入學圖》에 대한 불만에서 이 책을 지었다고 한다. 따라서 어느 의미에서건 《입학도설》의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되며, 특히 《심도》가 설명에 그림을 곁들인 圖說의 형태를 취한 것은 《입학도설》의 체제를 본뜬 것이 아닌가 한다. 당시의 撰進 명령을 받들어 주세붕의 《심도》와는 별도로 閔箕가 만든 《大學圖》도 함께 바쳐지고 있기 때문이다.¹⁸⁾ 따라서 圖說이라는 점에서 《심도》는 《입학도설》의 전통을 계승한 것이고, 도설을 이용한 군주교재라는 점에서는 李滉 《聖學十圖》의 선구라고 할 수 있다.

이황 이전에 《심경부주》에 대한 저술을 편찬한 학자는 거의 없다. 1530년대부터 사림학자들간에 《심경부주》가 읽혀진 사실은 확인되지만, 독서기록만 확인될 뿐 그 학습내용이나 이해수준을 알 수 있는 단편적인 자료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단지 주세붕이 《심경심학도》를 지었다는 기록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그 책이 전해지지 않아 그 내용을 알 수 없었으며, 《심경부주》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寫本이나마 그 실상을 대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어느정도 구체적인 면모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심도》는 비록 《심경》 자체에 대한 전문적인 저술은 아니지만, 《心經心學圖》라는 별칭대로 《심경》을 토대로 편찬된 心學書이며 여기에 圖를 덧붙인 책이다. 이 책은 이황 이전 단계의 《심경부주》에 대한 연구성과나 당시 학계의 성리학 이해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 중요하며, 임란 이전의 刊本이란 점에서 서지학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8) 《心圖》, 「進獻心圖序」